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 6월께 확정

죽산보·세종보 해체, 공주보 일부 해체, 승촌보·백제보 상시개방
 환경부 4대강 조사위 결론 ... “죽산보 해체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

영산강·금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모색해 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와 금강 세종보를 해체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공주보(금강)는 일부 해체, 승촌보(영산강)·백제보는 유지하되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보 해체 여부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관련 기사 3면>
 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산강·금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에 따른 비용(623억원, 공사비·물이

용 대책 비용 등) 보다 해체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1580억)이 더 높음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죽산보 설치 전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유지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죽산보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죽산보는 지난해 10월31일 전면 개방했다. 위원회는 하구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 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고하기로 했다.

승촌보는 해체 비용(960억원)과 편익(858억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승촌보 해체에 대해 수질과 생태는 개선되었지만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강 세종보에 대해서는 죽산보와 마찬가지로 해체 비용(332억원)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972억원)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세종보는 해체되더라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주보는 해체 비용(1140억원)보다 편익(1230억원)이 더 높음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 상부 공도교(公道橋)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물흐

름에 지장없도록 보 구조물 일부를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 개선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았고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도 높지 않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승촌보와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 연구를 진행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등 나머지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알립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



여수·광양만권 동북아 에너지 허브 조성

26일(화) 13:30~16:0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개선을 위해서는 여수산단의 에너지를 LNG 등 친환경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여수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나아가 여수·광양만권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는 계기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남도,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하는 이번 세미나에 지역민들과 학계, 여수산단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일보보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가 광양만권으로도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양만권의 대기질

- 명칭 :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 주제 발표 : 1주제-에너지 전환시대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2주제-광양만 도도에 동북아 에너지 허브 터미널 구축
- 일시 : 2019년 2월 26(화) 13시30분-16시
-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 주최 : 광주일보, 광주전남연구원
- 후원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光州日報社

김정은 위원장 전용열차로 4500km 대장정

23일 출발 내일 하노이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방문에는 김영철·리수용·김병해·오수영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 제1부 부장, 최선철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인 리설주 여사는 호명되지 않아,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의 '퍼스트레이디 외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역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과 정부, 군 간부들이 나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지난 23일 오후 5시(현지시간) 평양에서 출발, 오후 9시 30분께 북·중 접경지역인 단동역을 통과했다. 하지만 열차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고 텐진역을 거쳐 남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5일 하노이로 출발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15명 “5·18 폼페이 부정”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14명에
 원희룡 제주지사 동참
 “5·18은 가장 빛나는 역사”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모욕·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 단체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한국당 소속 2명을 제외한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14명 외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동참했다. 이 중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지사, 송 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직접 정문관을 찾아 입장문을 낭독했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 대신 허중식 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그러나 극히 일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5·18에 대한 망언, 광동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입장문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5·18에 관한 일부 인사들의 망언이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라며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에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

살’이 ‘망언 확산’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을 제명조치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5·18 망언’을 사과하고 위로했던 권영진 대구시장도 입장문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시장은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당 소속)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형일자리 캠페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